

웹 프로그래밍 기말과제 구현보고서

B977016 박정윤

목차

1. 구현 의도 및 소개
2. 최종 결과물 소개
3. 처음 기획과의 차이점
4. 맺음말
5. 최종 과제 영상 게시 링크

1. 구현 의도 및 소개

웹 프로그래밍의 기말과제를 학기 초부터 구상하며 떠올렸던 것은 최근 '환경오염' 이라는 이슈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채식주의'였습니다. 채식주의에 대한 늘어난 관심에 부응하듯 채식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¹ 이러한 여론과는 상반되게도, 채식주의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². 채식주의에 관심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채식주의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이므로, 종류에 따른 채식을 설명하며 일반식단과 큰 차이가 없는 채식의 레시피를 두가지 소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졌습니다.

¹ 채식인구 10년새 10배 ↑ ... 폭발하는 '비건' 시장 , <한국일보>, 2021.01.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813240002392> (접속일 2021.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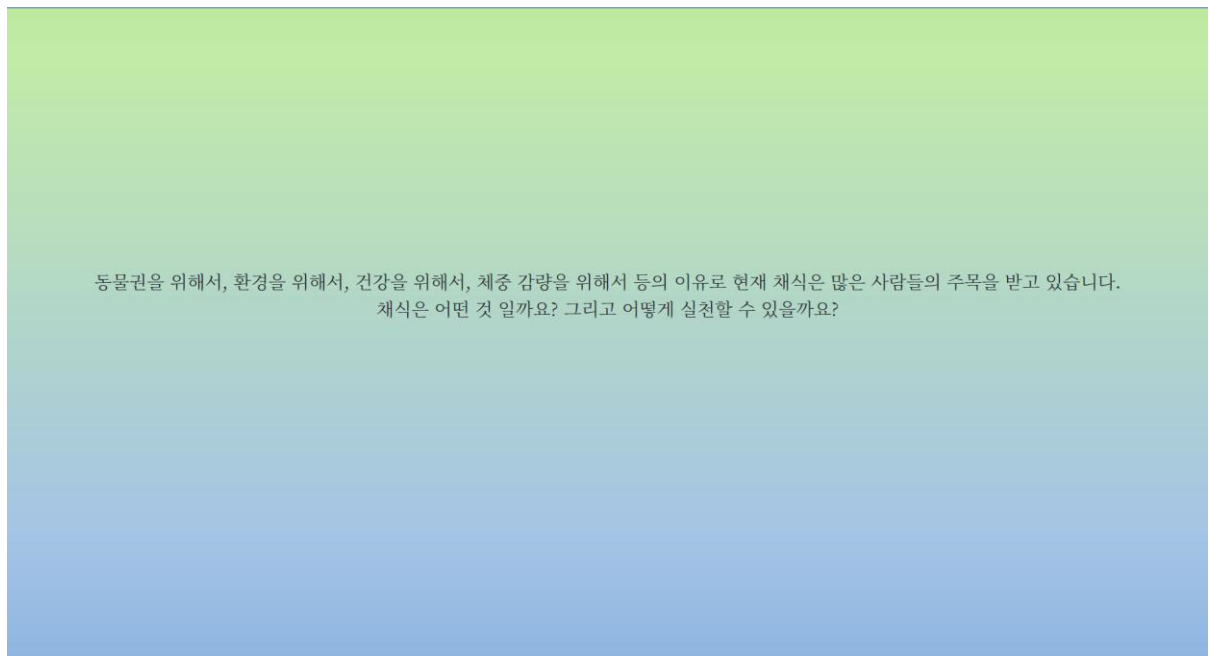
² [비건데이터] 채식뉴스 댓글 75% '부정적'... "풀먹기 강요하지 마", <비건뉴스>, 2021.02.25,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10897> (접속일 2021.06.21.)

2. 최종 결과물 소개

최종 결과물을 각 구역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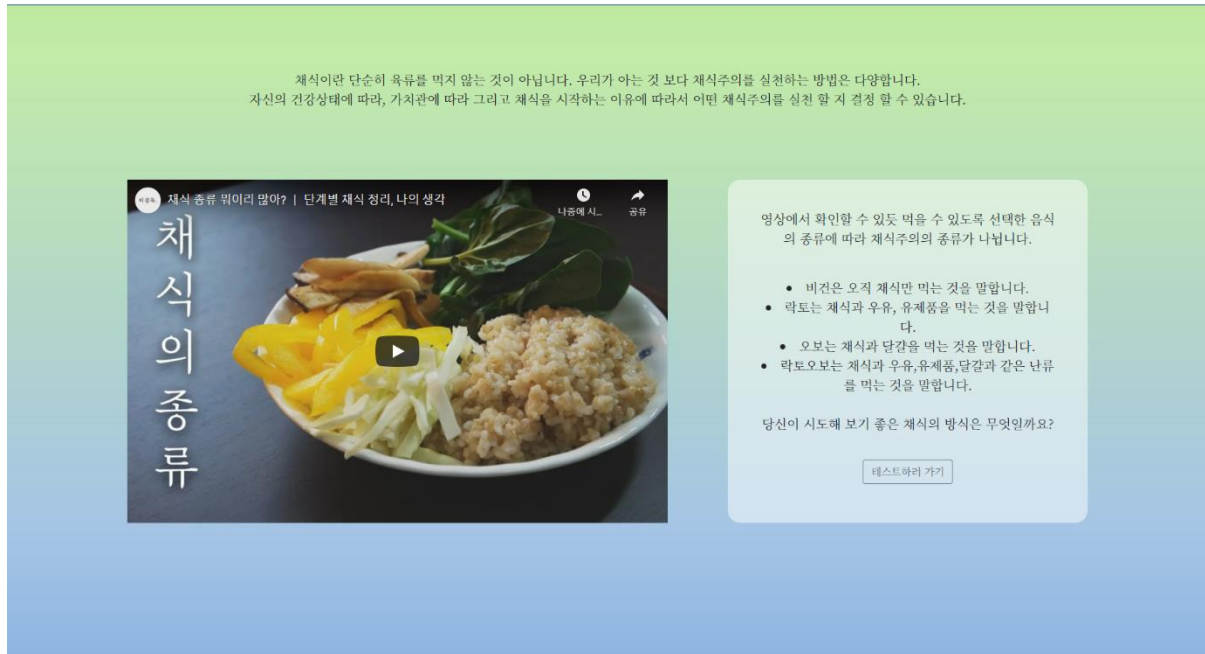
1) 첫 번째 구역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채식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홈페이지가 소개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립니다. 문구를 읽어보고 클릭하면, onClick에 의해 첫 번째 구역의 display가 none으로 바뀌며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구역을 보게 됩니다.

전체 페이지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폰트는 본 명조(구글 폰트 상에서는 Noto serif)를 사용했으며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2) 두 번째 구역



채식이 단순히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님에 대한 설명과 함께, div태그를 사용해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였습니다.

영상은 채식의 종류에 대하여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에는 앞으로 소개될 비건, 락토, 오보, 락토오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부터 채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명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영상이 플레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div태그를 사용해 배경 투명도를 조절하였으며 영상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테스트하러가기 버튼을 누르면 onClick을 통해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며, 다음 구역을 보여주며 현재 구역의 css display 속성을 none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세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은 테스트를 시작하는 페이지입니다. 배경은 앞에서 사용해 오던 이미지를 사용해 통일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음 사용자에게 채식의 타입을 추천해주는 앞으로 하게 될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테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를 떠나 테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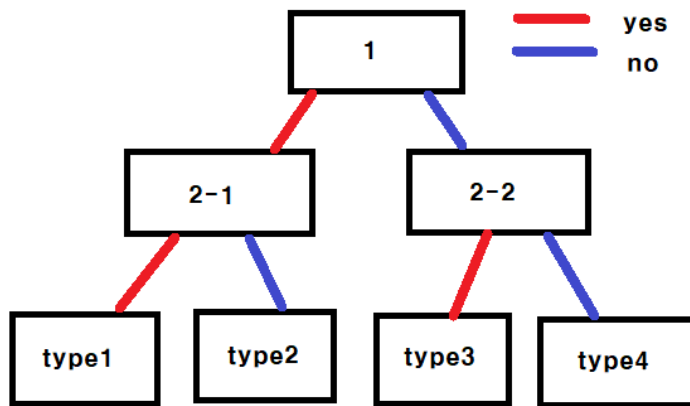
4) 테스트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 설명에 앞서, 사용자는 총 두 가지의 질문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채식주의의 타입을 추천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테스트 페이지의 구성에 대한 설명 그림과 함

깨하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 페이지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응답을 고르게 되면 두 번째에는 두 번째 질문 중 1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르는 응답에 따라 두

가지 타입 중 하나를 안내받게됩니다. 각 페이지에서 고르는 값에 따라 사용자는 추천을 받게 됩니다.

4-1) 테스트 페이지 1



당신은 평소 비건, 채식주의의 실천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첫 번째 질문은 평소 비건과 채식주의의 실천에 대한 관심을 물어봅니다. 버튼을 통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평소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실천하는게 좋을 지 더 알고싶다.'를 고르게 되면, 두 번째 질문 중 1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의 '평소 관심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처음 정보를 접했다.'를 고르게 되면 두 번째 질문 중 2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4-2) 테스트 페이지 2-1



당신은 이전에 비건, 채식주의를 실천해 본 적 있나요?

☐ 실천해 본 적 있으며, 앞으로도 실천할 의향이 있다. ☐ 관심은 있었으나, 실천해 본 적은 없다.

첫 번째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답을 골랐다면 두 번째 질문 중 1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1번 질문을 통해 비건, 채식주의를 실천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페이지로, '실천해 본 적 있으며 앞으로도 실천할 의향이 있다.'와 '관심은 있었으나, 실천해 본 적은 없다.' 중 두 가지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답을 고르게 되면 1번 결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답을 고르면 2번 결과를 보게 됩니다.

4-3) 테스트 페이지 2-2

당신은 비건, 채식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실천할 의향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천 의향이 크게 있지 않아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첫 번째에서 아니다에 해당하는 답을 골랐다면 두 번째 질문 중 2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2번 질문을 통해 비건, 채식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와 ‘실천 의향이 크게 있지 않아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다.’로 답변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자로 대답을 하게 되면 결과 3을, 후자로 대답을 하게 되면 결과 4를 볼 수 있습니다.

4-4) 결과1

채식에 관심이 많고 실천해 본 적까지 있는 당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채식은 비건입니다.

비건은 모든 육류와 어류, 난류,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비섯과 해조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비건은 가장 먹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신경써야 할 것은 많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천해 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채식에 관심이 많은 당신께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도해보기 좋은 비건 레시피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비건레시피는 가지갈비덮밥입니다.



간단히 해먹기 좋은 레시피이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히 만들기 좋은 덮밥요리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비건레시피는 두부강정입니다. 닭강정 대신 두부강정 어떠세요?



닭강정처럼 두부를 튀긴 후 소스를 입혀 간식으로 먹기 좋은 요리입니다.

1번 결과는 비건입니다. 관심과 실천경험까지 있는 사용자에게 추천 되는 결과로, 비건에 대한 설명과 비건레시피 가지갈비덮밥, 두부강정에 대한 레시피 영상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공됩니다.

4-5) 결과 2

채식에 관심이 많지만 실천은 해보지 못한 당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채식은 바로 오보입니다.

오보는 육류와 어류,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비섯과 해조류, 채소, 과일, 그리고 계란과 같은 난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보는 비건 다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섯과 채소와 동물의 알로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보는 채식에 관심이 많은 당신이 부담스럽지 않게 시도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도해보기 좋은 오보 레시피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오보 레시피는 바로 빼없는 감자탕입니다.



육식 재료는 없는 감자탕레시피로, 채식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탕을 만들어 먹어보는 한끼 어떠세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오보 레시피는 흑임자 찰떡 쿠키입니다.



베이킹에 핵심재료인 우유와 버터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오보를 시도해보는 당신께 추천합니다.

2번 결과는 오보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실천경험이 없는 사용자에게 추천 되는 결과로, 오보에 대한 설명과 오보 레시피 빼 없는 감자탕과 흑임자 찰떡 쿠키의 레시피 영상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공됩니다.

4-6) 결과3

채식을 처음 접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당신! 당신에게 추천 하는 채식은 락토입니다.

락토는 육류와 어류, 난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입니다. 버섯과 해조류, 채소, 과일, 유제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락토는 유제품을 먹을 수 있으므로 오보와 비건보다 더 다채로운 레시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오보는 채식을 처음 접하나 일주일에 하루쯤은 실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당신께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도해보기 좋은 락토 레시피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린 락토 레시피는 바로 그릭요거트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릭요거트는 유제품을 먹을 수 있는 락토를 시도하며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린 락토 레시피는 브로콜리 스프입니다.



버터와 생크림, 우유, 파마산 치즈를 사용하는 락토 레시피로 한번쯤 먹어보기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3번 결과는 락토입니다. 채식을 처음 접하나 실천의지가 있는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결과입니다. 락토에 대한 설명과 오보레시피인 그릭요거트, 브로콜리 스프에 대한 레시피 영상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공됩니다.

4-7) 결과 4

채식을 처음 접하고 시도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채식은 락토오보입니다.

락토오보는 육류와 어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입니다. 버섯과 해조류, 채소, 과일, 유제품, 그리고 계란과 같은 난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맛 그대로 고기만 먹지 않는 채식주의이므로 가장 실천하기 쉽습니다.
채식을 처음 접해 어렵게 느껴지는 당신!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먹지 않는 날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도해보기 좋은 락토오보 레시피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린 락토오보 레시피는 바로 햄버거입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락토오보 햄버거입니다.
고기를 넣지않고도 충분히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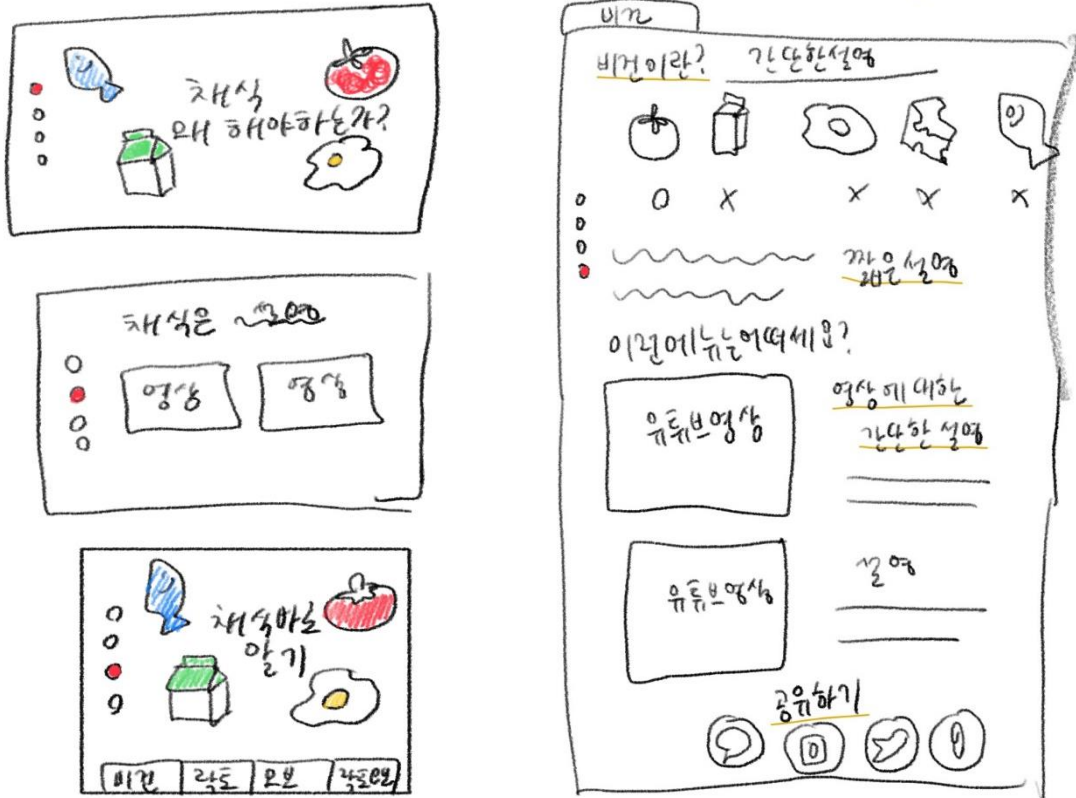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린 락토오보 레시피는 비건 투움바 파스타입니다.



채식을 시도할 엄두가 나지않는 당신에게 채식보다 맛있는 요리로 느껴지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4번 결과는 락토오보입니다. 채식을 처음 접하며 실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결과입니다. 락토오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락토 오보레시피로 일반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인 햄버거와 파스타에 대한 레시피가 제공됩니다.

3. 처음 기획과의 차이점



처음 기획에서는 채식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페이지, 채식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하는 페이지, 채식의 종류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는 페이지, 채식에 대해 설명하는 페이지로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비건에 대해 설명하고, 채식의 종류별로 사용자가 안내를 받는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테스트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의 구성으로 페이지 기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각 페이지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이동이 가능한 왼쪽 고트머리의 버튼, 그리고 종류별로 채식을 안내하는 페이지에서 공유하기 버튼 등을 페이지의 구성이 변경되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했습니다.

4. 맺음말

기말 과제를 기획하며 교수님께서 첨삭해주셨듯, 정보성이 짙은 페이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기획서를 제출하고 나니, 페이지의 구성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의 구성을 떠올리며 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웹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Html과 css에 대한 기초 강좌를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공부한 적 있으나 웹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고나니 웹에 대하여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필요성을 느껴 방학동안 자바스크립트에 대하여 공부할 계획입니다.

5. 최종 과제 영상 게시링크

<https://youtu.be/1kLj23c5tAo>